불국사 대웅전, 올해 해체 수리 추진

국립문화유산硏, 중점 관리 모니터링 결과 보고

지난해 국보 보물 24건 점검
불국사 대웅전 등 3건 '수리'
보현사 낭원대사탑비도 해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불국사의 중심 전각인 대웅전이 올해 중으로 해체 수리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 이하 연구원)은 2월 12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및 2026년 계획 보고'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2015년부터 국보, 보물 등 주요 문화유산 중 중점 관리 대상 20~30건을 선정해 구조 안전, 보존과학, 생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호(A) △경미 보수(B) △주의 관찰(C) △정밀 진단(D) △보수(E) △긴급 조치(F) 등급으로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국보 13건, 보물 11건 등 총 24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경주 불국사 대웅전(보물)을 비롯해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보물),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국보) 등 3건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1건은 주의 관찰인 C 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1년 보물로 지정된 불국사 대웅전은 절의 중심 불전(佛殿)으로 앞에는 8세기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가 담긴 국보 다보탑(동쪽)과 석가탑(서쪽)이 각각 세워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돼 조선 영조 시기인 1765년에 중창됐지만 건물 하부의 초석, 기단 등은 신라시대 조성 당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불국사 대웅전 곳곳은 적지 않은 손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웅전 내부 동측 대량(大樑, 작은 들보의 하중을 받기 위해 기둥 사이를 건너지른 큰 들보)이 파손됐으며 지난해 2월에는 마룻보와 근접한 반자(지붕 밑을 편평하게 해 주는 구조물) 부재 일부가 탈락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대량 및 종부 손상과 연계된 손상으로 판단되며 해체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올해 중으로 건물 구조를 해체 수리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국사 대웅전 전경.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중점 모니터링 결과 수리가 요구되는 'E' 등급을 받았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낭원 대사(834~930)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는 비석의 몸체가 기울고 비석을 관통하는 균열이 확인됐다. 연구원은 "탑비의 추가적인 변형이 우려돼 올해 중으로 해체 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용하여 쌓아 올린 탑인 전탑(塼塔)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은 5년 연속 E 등급을 받았다. 1940년대 일제가 탑 주변에 중앙선 철로를 놓으면서 오랜 기간 기차가 오갔는데, 2021년 철로를 철거한 이후 탑이 북서쪽으로 35㎜ 정도 기우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옥개부 전돌에 균열이 생겼으며 기단 시멘트 모르타르가 파손됐다.

다만 최근 구조 변위 진흥은 없고 안정적인 상태여서 안동시와 함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3월 중 모니터링 결과를 유관 부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오는 6월 중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올해 국보 13건, 보물 12건 등 25건의 문화유산을 중점 모니터링한다. 점검 대상에는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공주 갑사 대웅전(보물), 강진 해남윤씨 추원당(보물)이 새로 포함됐다.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너머 만난다

종로구, 석탑 내부 일반 공개
3월 4~15일, 사전예약 접수해
보호각 설치 후 27년 만 처음


2월 20일 진행된 원각사지 십층석탑 사전 공개회 현장. 사진=종로구청

보호각 속에 있는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직접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탑골공원 내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1999년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보호각을 설치한 이후, 시민이 석탑 바로 앞까지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1467년 세조 재위 당시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화강암이 주류인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조성된 희귀 유산이다. 탑신 곳곳에 새겨진 정교한 불·보살상과 문양은 당대 불교미술의 정수로 꼽힌다.

하지만 보존을 위해 설치한 유리 보호각은 두꺼운 유리와 빛 반사로 인해 세밀한 관람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결로 현상과 통풍 불량을 유발해 석탑의 물리적 훼손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방에 앞서 종로구는 2월 20일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해 이종찬 탑골공원 성역화추진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공개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마쳤다.

해설은 성균관대학교 동아리 '역사좀아일'이 맡는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시민 주도형 투어를 접목한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성균관대학교 2025 S-Global Challenger 대상' 등을 수상하며 이미 실력을 인정받았다.

관람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2월 23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종로구 문화유산과(02-2148-2043)로 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한마음선원 신행과 봉암사 결사 정신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오는 3월14일 안양본원서

한마음선원 신행 양상 속 봉암사 결사 정신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오는 3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안양본원 3층에서 제2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연구하고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을 발표하는 계절발표회를 매년 4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계절발표회는 이산인문예술학당 대표 동광 스님을 좌장으로 두 가지 주제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경희 동국대 연구교수는 '법장 '십지품' 해석과 세친의 영향'에서 세친이 지은 〈십지경론〉과 법장이 지은 〈탐현기〉 '십지품'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봉암사 결사 정신 계승의 일면: 한마음선원의 법당 장엄과 신행 의례'를 통해 한마음선원의 신행 양상이 현재 조계종의 의례와 수행 양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1947년 봉암사 결사 정신 계승의 일면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논평은 동국대 특임교수 석도 스님, 박보람 충북대 교수,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맡는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의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채널을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김성녀 교수, 3·1문화상 예술상 수상

3·1문화재단 수상자 발표
마당놀이 대중화 공로로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사장 안동일)이 제정·운영하는 제67회 3·1문화상 예술상 수상자로 대표 불자 음악인인 김성녀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사진〉가 선정됐다.

김성녀 석좌교수는 1976년 데뷔 이후 50여 년간 연극, 뮤지컬, 창극, 마당놀이 등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가장 한국적인 연극 무대를 만들어 온 배우이며 연기와 노래, 춤이 모두 가능한 우리나라 대표 예인(藝人)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석좌교수는 2005년 1인 32역의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 초연 이후 2025년까지 매년 국내외 40여 개 도시에서 300회 이상의 공연을 이어 왔다. 2005년 '동아연극상 연기상', '올해의 예술상', 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등을 수상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파격적인 소재 발굴과 현대적 연출을 유도하여 창극을 한국 공연예술의 주류로 올려놓았다. 나아가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창극을 제작하였으며 다양한 전통의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창극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유럽의 권위 있는 연극 페스티벌을 통하여 창극의 정체성을 세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늘날 '마당놀이'가 공연 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는 과정에도 그의 헌신이 지대했다. 1981년 새로운 장르로 출범한 마당놀이의 대표 연기자로, 45년 동안 2000회 이상의 공연과 2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마당놀이를 대중화하는 데 일조했다. 풍물놀이, 줄타기, 탈춤, 차전놀이, 윷놀이 그리고 소리, 몸짓, 연기 등 전통극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과 조화시켜 마당놀이의 정체성과 예술적 방향성을 확립한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

시상식은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렸으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신중일 기자

